

음악교육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보고서 2021 Fall Seminar Report

이보림*

Bolim Lee

한국음악교육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가 <새로운 교육과정과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2020년 10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세 명의 주제발표와 세 명의 심층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학술대회는 2021년 기준 한국음악교육학회장 상명대학교 김미숙 교수의 개회사와 서울교육대학교 양소영 교수의 사회로 시작 및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경희대학교 이보림 외래교수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허수연 서경대학교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전주교대 최은아 교수였고 주제는 ‘블렌디드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과정 개발 연구’였으며 토론은 최진경 목포대학교 외래교수가 맡았다. 마지막 순서로 경동고등학교 김지현 교사가 ‘실태 분석을 통한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토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형섭 외래교수가 진행하였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보림 외래교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성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개인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방안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논의하였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 모듈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뉴노멀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확장을 위해 여가, 놀이, 경계 허물기의 세 가지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외래교수

토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문화예술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논의에 대해 서경대학교 허수연 연구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기회는 교육현장의 환경, 개인의 문화 자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오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토론을 제안하였다.

전주교육대학교 최은아 교수는 뉴노멀 시대에 적용가능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의 블렌디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이라는 연구 목적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1)이해 단계에서 제공한 강의 영상은 실습 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비계 역할을 하는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반이 될 것이며, (2)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피드백과 의견 나눔은 소통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3)시공간적 확대와 분산이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의 융합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목포대학교 최진경 외래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실습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였다.

경동고등학교 김지현 교사는 학교예술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해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에 대한 논의점을 모색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국가 주도적으로 학교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되어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보편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인 5개 시·도별 운영 계획 및 성과에서 학교 또는 지역별 결과는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예술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있지만, 예술교육의 진정한 ‘보편성’, 즉 모든 학생에게 예술교육 정책이 두루두루 적용되어 예술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일관되게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형섭 외래교수는 첫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했을 때의 혼선 지점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였다.

Covid-19는 4차 산업시대의 다양한 산물을 예상보다 더욱 급격히 우리의 교육현장으로 몰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음악교육 현장의 교수자이며 연구자로서 날카로운 성찰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범교과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원격 교육의 시류로 인해 혹시나 음악 교과와 온전한 특질 발현이 방해받을 것은 아닌지, 또한 뉴노멀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기술적 측면에 적합한 준비와 절차가 실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21년 10월 22일의 한국음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음악 교과 측면에서의 내·외적으로 견고한 노력이 충분히 드러났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음악교육을 위해 귀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시는 모든 음악교육 학자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